

# 축산업계

소식

## 한국낙농육우협 정기총회 개최 -회장에 강성원씨 선출-



◀ 강성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월21일 '9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이윤우(신촌목장, 50세)회장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 서울우유조합장을 역임한 바 있는 강성원(성원목장, 65세)씨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 제6회 가축개량 심포지엄 개최

한국가축육종연구회(회장 송찬원)가 주최한 제6회 가축개량에 대한 심포지엄이 지난 2월 24일 축협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UR을 극복하고 양축가의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심포

지엄에서 한우-조병대 과장(축산시험장), 젓소-박신호 국장(종축개량협회), 양돈-정영철 전무(유전자원), 양계-한성욱 교수(충남대)가 각각 분야별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 한국사료협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사료협회(회장 김주호)는 지난 2월2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주요사업계획은 조사연구사업, 원료공동구매사업, 기술연구사업, 홍보사업, 협회기능 활성화, 복리후생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 한국계육외식업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회장에 한신일씨 선출-



◀ 한신일

한국계육의식업 협의회는 지난 2월21일 유성에서 '9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선출이 있었는데 회장에는 한신일(153유통), 부회장 오수중(경우식품)·신갑순(맥켄상사), 총무 박종하(대한유통)씨가 각각 선출되었다.

### 부화협회 정기총회 개최

—「부협식품」설립 추진—



한국부화협회(회장 양승덕)는 지난 2월19일 축산회관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계 및 육계의 수급조절사업을 담당할 (주)부협식품을 설립기로 하였다.

### 뉴캐슬병 발생주의보 발령

농진청은 최근들어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일부지역에 닭뉴캐슬병이 발생, 피해가 크게 일어나자 26일을 기해 뉴캐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질병은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폐사율도 거의 100%에 이르며 전파력이 매우 빠른 법정전염병으로 이 병이 발생한 농장은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기본 프로그램

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사전예방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방지 철저

—연2회 이상 수거검사 강화—

농림수산부는 최근 보사부에서 시중 유통되는 식육을 수거 잔류물질 검사를 각 시·도에 연 2회 이상 수거검사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이와 관련 축산물검사 여건 등을 감안 국내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축사육 단계에서 유해물질 잔류요인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항생제 등 동물약품 투여시 휴약기간을 충분히 지켜 출하토록 하며 △동물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질병치료시 전문 수의사와 상의하고 △동물약품 안전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후기배합사료 철저급여 △동물약품 첨가기준 준수 및 표기 △1차검사 양성 판정축 출하농가 특별관리 △검사 성적 기록유지 및 검사대장 작성관리 철저 등을 골자로한 대양축가 지도계몽 지침을 시달하였다.

### '92 축산시책 추진회의 개최

—예산작년보다 54% 늘려 지원—

농림수산부는 1월29일 축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각 시도축정과정, 국립종축원, 농진청 등 공무원과 축협, 종축개량협회 등 축산관련단체, 양축가 등 관련인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축산발전사업계획과 실시요령을 시달하고 참가자들로 부터 의견을 듣는 '92년도 축산시책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91년도 축산시책 유공자 7명을 포상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용축산국장은 올 예산을 작년보다 54% 늘어난 7천2백15억원을 지원키

로 했다고 밝혔으며, △축산물수급과 가격안정 사업 정착 △축산업구조 또는 유통구조 개선 △사료자원의 적극개발과 사료수급 안정 △축산공해 방지대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의 축산정책방향을 시달렸다.

또한 올해에는 우수양축농가 3백명을 선발, 집중지원해 축산업을 이끌어 나갈 정예양축가 육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으며 이들 우수양축가의 추천권은 축종별 생산자단체 내지 대표가 주도적으로 행사토록하여 선발의 타당성을 높이도록 했다.

### 축사시설개선에 632억원 투입 - 1천8백개소에 호당 3천5백만원씩 지원 -

농림수산부는 올해 1천8백6개소의 양축농가에 대해 축사시설 개선자금으로 3천5백만원씩 총 6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축종별로 각각 닭·오리 3만수, 소 50두, 돼지 2천두 이하의 사육농가로 축사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로, 가축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계열농가 및 수출용 축산물의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양축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이미 지원을 받았던 농가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상환에 연리5%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며, 지원자금은 자동 급이, 급수시설, 집란시설, 착유시설, 환기시설 등 내부시설과 분뇨수거 및 처리시설의 설비, 축사의 신축 및 증·개축에 쓰이게 된다.

시설자금 지원대상자는 각 도지사가 선정, 오는 4월말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토록 했다.

### 양돈·양계 계열화자금 대폭증액 - 8개업체에 업체당 35억원씩 -

지난해 양돈·양계계열업체에 대한 계열화자금이 6개업체에 업체당 25억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8개업체에 업체당 35억원씩, 총 2백80억원을 지원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각 시·도지사가 계열화생산 사업자 지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 당부에 제출한 업체에 대해 축산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계열업체의 생산규모에 대해 돼지 3만두이상(사육농가당 5백~2천두수준), 닭 1백만수이상(농가당 2만~5만수수)으로 밝혔다. 또한 이의 지정기준에 대해 일반계열화 사업자의 경우 가축계열화생산사업을 위하여 정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계열화사업자 지정 신청일 6개월전부터 생산규모의 20%이상 계열화사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올해 계열화자금 신청자격 조건과 관련, 작년의 경우처럼 예전에 계열화자금을 한번이라도 받은 업체는 제외될 방침으로 알려졌다.

### 축산폐수 처리사업 추진계획 확정 - 폐수처리 380억 지원 -

농림수산부는 올해 축산폐수 처리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388억원의 자금을 가축분뇨정화시설 설치 등에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농발기금 3백58억5천만원, 축진기금 29억5천만원 등 모두 3백88억원의 자금을 동원, 간이정화조시설 및 정화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양축농가에게 융자 또는 보조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전국에 6천9백개의 간이정화조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 개소당 3백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70%는 융자로, 나머지 30%는 보조하도록 하며,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상환으로 되어있다.

## 주요축산물 수급계획 발표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92년도 축산물 수급계획(단위/톤)

구 분	공 급	수 요	재 고 (93년으로이월예정)
쇠고기	이월량 5,200	232,500	2,697
	국내생산 105,003		
	외산 125,000		
	소계 235,203		
돼지고기	이월량 2,000	국내소비 539,000	18,000
	국내생산 568,000	수출 13,000	
	소계 570,000	소계 552,000	
닭고기	218,300	216,500	1,800
우유	이월량 66,000	2,000,000	25,000 (분유로환산시 2,500)
	국내생산 1,859,000		
	수입 100,000		
	소계 2,025,000		
달걀	474,200	441,800	32,400

## 동·식물 검역 국제수준화 추진

농림수산부는 지난 2월6일 UR협상에 따른 국내검역기반 강화를 위해 검역제도와 법령을 재정비 하여 국제수준과 조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선진국가와의 검역기술교류를 확대하고 검역시설, 장비의 현대화, 최신 소독방법 개발에 주력하고, 또한 주요 국가와의 검역전문가 회의를 활성화하여 통상마찰을 완화시키고, 수출 농축산물의 수입규제 완화를 위한 대외교섭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수출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상 지원에 역점을 두어 주요국가와의 검역전문가 회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동·식물검역소, 농진청, 학계 등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입국 요구사항인 국내 병충해 발생

상황과 이들 병충해의 소독방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대상국이 신뢰성을 갖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수출검역제도 간소화, 수출시의 애로사항과 상대국의 여러가지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조사료생산 구조개선대책 수립

—'93년부터 적극 추진키로—

농림수산부는 1월30일 축산물의 생산비절감을 위해서는 국내사료생산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부터 기조성된 초지와 사료작물재배지 및 유희농지를 최대한 활용키 위한 구조개선사업시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최근 '93년도에 추진해야할 조사료 생산 구조개선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하고 사업희망물량조사 등 세부적인 조사에 착수했는데 주요내용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초지조성·기성초지보완 및 사료작물재배사업계획을 비롯 △경사도 20도미만의 기성초지와 사료작물재배용 농지의 토지정리 사업계획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의 용수원개발 시설계획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조성 및 농가단위 기계구입 △양계·양돈·낙농 등 한계농지 및 배후지를 이용한 축산단지 조성계획 등으로 되어 있다.

## 농어민 후계자 지원금 상환기간 연장

앞으로 농어민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자금의 상환기간이 3~5년거치 3~7년에서, 5년거

치 5년상환으로 조정되고, 용자방법도 보증인 2인을 원칙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대출도 가능토록 했다. 또한 1인당 자금지원액을 작년 1천3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농지구입자금을 2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미 선정된 농어민후계자 가운데 경영규모확대와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이상 경과된 후계자 1천명을 선정 1인당 5천만원까지 사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 무역특계자금 7억원 지원

상공부는 올해 총 5백44억원 규모의 무역진흥특별회계 예산 가운데 7억원이 올해 농수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특계자금으로 지원한다.

이같은 규모는 당초 농림수산부가 상공부에 농수산물 수출시장 조사단파견, 농수산물 수출 전시판매장 건립, 농수산물 무역정보센터 설치 등을 위해 49억5천만원을 무역특계자금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이같은 지원액은 연간 수입농수산물에서 징수되는 25억원 규모의 무역특계자금 조성액에도 훨씬 부족한 액수이다.

## 동물약품 사용시는 안전사용 10대수칙 준수하자

### 무허가 부화장 및 미등록 종계장 고발센터 안내

- 대 상 : ○무허가 부화장 경영자  
○미등록 종계장 경영자  
○미검정 종계 유효기간 초과 종계 보유자  
○불량종란 또는 불량초생추 생산·유통하는자
- 방 법 : 서면 또는 전화(신분 보장)
- 조 치 : ○접수후 사실확인 위법사실 확인되면 당국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  
○결과 월간양계 및 양계관련 매체에 공표
- 접 수 :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전화 : (02) 588-7651, Fax : 588-7655